

임실, 농가 단비대책 추진

4억원 예비비 긴급 투입 스프링클러·호스 등 지원

임실군이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특단의 '단비대책'을 추진, 시름을 달래주고 있다.

군은 폭염과 가뭄으로 논과 밭작물의 타격이 적지 않은 가운데 스프링클러를 공급하는 등 특별대책을 세우고, 4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했다. 스프링클러 3,000여개와 호스 8,000여롤, 물통 800여 개를 긴급하게 공급하여, 농가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심 민 군수는 연일 "폭염으로

인해 밭작물이 타들어갈 정도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우리 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 임실군은 7월 초부터 40여일간 지속된 폭염경보 속에 일일 폭염 상황보고를 전 직원이 열람하며, 폭염과 가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외에도 군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다양한 폭염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관내 332개소 무더위 쉼터의 이용 강화를 적극 홍보하고,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왔다.

308명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들을

투입하여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는 한편, 임실과 오수, 관촌 등 주요 간선도로 16개 노선에 살수차를 운영중이다.

관내 터미널 4곳(임실, 오수, 관촌, 강진)에 40kg짜리 열음을 2개씩 각각 비치했으며, 주요 공사장에 간이 무더위 쉼터를 만들기도 했다.

심 민 군수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으로 이 폭염에 지친 농가분들에게 시원한 단비가 되어 걱정을 덜어주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 큰 호응

순창군, 만 65세이상 주민에 50% 지원 등

순창군이 지역 특성과 고령화 시대에 맞춰 추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사업을 통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민은 총 5,176명에 이른다.

이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인 3,882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314명, 그 외 만 50세이상 주민은 980여 명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고가의 예방접종비용으로 접종을 망설였던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순창군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해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한 사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사업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1~3급)에 대해서는 백신비의 80%를 지원해 본인 부담금을 2만원으로 낮추는 혜택을 준다. 만 65세이상 주민에게는 50%를 지원해 본인은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 외 50세 이상 주민은 약제비 10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별도의 접종비용을 받지 않는다. 각 계층별로 본인부담 2만원에서 10만원이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대상포진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사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상포진'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따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으로 사방 몸의 등뼈 부근에 있는 신경절에 잠복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은 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다.

황숙주 군수는 "대상포진은 60세 이상 노인층들에게 나타날 확률이 크다면서 우리군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꼭 맞는 다양한 의료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문의는 군 보건의료원 전화 650-5262, 5243 으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남원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5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1억6,000만원의 추가예산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남원시 환경과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중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남원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성능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및 폐차대상차량 확정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01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홈페이지 20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담당(063-620-6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승마 체험센터 개설

순창군은 순창군 승마장이 한국마사회 생활승마 체험센터에서 주관하는 2018 전 국민 승마체험사업 진행 승마장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승마 강습비를 지원하여 승마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승마 초보자를 대상으로 10회 강습비 총 30만원 중 5만원만 부담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전 국민 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 단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희망하는 강습과 승마장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호스피아) 홈페이지 또는 순창군 체육문화시설사업소 063)650-5515, 553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공동도매물류센터 중소유통업계 버팀목

수수료 인하로 가격 경쟁력 높여 임직원 노력으로 매출액 증가

지난 2012년 전북 동부권 물류가게 공동구매와 물류유통을 지원하는 거점센터로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 남원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지역 중소유통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는 등 든든한 버팀목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원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중소유통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공동 구매함으로써 배송, 유통과정 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면서 구매비용을 30%정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순탄하지 않고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세계경제의 침체와 내수부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상권 위축으로 유통업체가 감소하는 데다, 최소 수수료로 물품을 공급하다 보니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그나마 근래 들어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매출액이 조금씩 늘고 있어 고무적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매출액은 2015년 62억 800만원, 2016년 58억7,100만원, 2017년 61억 1,300만원이며, 올 들어서도 1/4분기 13억3,100만원, 2/4분기 17억 9,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김경주 이사장은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경영으로 중소 유통업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 유통업체가 대형마트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중앙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

남원시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노인봉사사무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원시청 강당에서 금암공원 및 중앙공원 기본계획

방향을정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앙공원(구역사부지)은 남원시민의 궁지와 지부심이 담겨있는 역사적 장

소로 광한루, 남원예천, 함파우 유원지, 국민관광지, 춘향테마파크 등을 연계하여 사내권 관광벨트를 구성할 계획이며, 금암공원은 세내권 관광벨트와 연계해 침체된 노안동 지역의 관광거점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7월 중순-8월 초 까지 사업비 5000만원 투입 3만3000여본 여름꽃 심어

임실군은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을 위한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군은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임실읍 시가지 주요도로변 꽃박스와 화단에 3만3000여본의 여름꽃 식재를 모두 끝마쳤다.

여름관상용으로 사랑받고 있는 백일홍을 비롯해 메리골드, 웨이브패튜니 아등 총 7종의 다양한 색깔로 식재한



이번 여름꽃은 지금부터 피기 시작해 8월말까지 개화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여름꽃 식재를 통해 무더위로 지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상쾌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관수작업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정임실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참가 및 우승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